



과 ● 학 ● 기 ● 술 ● 부

첨단 방사선 이용 연구센터 착공

**방**사선기술(RT)을 이용해 의료, 환경, 생물 자원 등 실생활에 밀접한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첨단 방사선 이용 연구센터'가 전북 정읍시 신정동에 들어선다.

기공식은 6월 18일 오후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박호군 과기부장관과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정읍시 신정동 공사현장에서 거행됐다.

첨단 방사선 이용 연구센터는 2005년 12월까지 정읍시 신정동 13만8천평 부지에 477억원이 투입돼 건설되며 감마선 조사(照射)시설, 전자선 가속기, 수명이 짧은(1시간~24시간) 방사성동위원소를 만드는 사이클로트론, 이온빔 조사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 같은 첨단기기를 활용해 방사선의 특성과 물질에 대한 영향, 방사선 발생 기술과 방사선 의료 기술, RT(방사선기술)와 BT(바이오 기술)·NT(나노기술)·ET(환경기술) 융합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게 된다.

RT는 의료, 공업, 환경, 생물자원 등 실생활에 밀접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술로 세계 시장 규모는 2000년 2천800억달러였고 오는 2010년에는 1조1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부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 수준이 세계 6위로 평가되지만 방사선기술 수준은 37위에 그치고 있다며 미래산업으로 중요한 분야인 방사선 이용연구의 발전을 위해 연간 500억씩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는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진흥법'을 제정·공포하고 올해부터 RT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센터에는 연구개발 전문인력 등 1천여명이 상주하고 관련 산업분야의 기업입주가 이어져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방사선기술(RT) 국가 주요산업으로 육성

**원**자력산업 매출액(전력분야 매출 제외)은 2001년 기준으로 2조302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 부분 매출액은 1천863억원이었다. 원자력산업 매출 가운데 방사선과 방사성 동위원소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10%에서 오는 201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과학기술부는 방사선 이용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이용 증진을 위한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

소 이용 진흥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의료, 농업, 공업, 항공 등 이용 분야가 거의 무궁무진한 것으로 평가되는 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 체제가 완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부는 앞으로 방사선 관련 주요 정책 수립과 시행이 이 법과 시행령에 따라 이뤄지고 방사선을 이용하는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이용, 연구기반 확충 사업도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 원자력 기술지도 제작된다

**과** 학기술부는 원자력의 사회·경제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 4월까지 원자력 기술지도'를 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요지향적인 원자력 분야 전략 제품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 개발 대상 신기술은 물론 개발 일정과 자원 배분 방법 등을 내용으로 담게된다.

원자력 기술지도는 원자력·비원자력 분야 산·학·연 전문가 25명으로 원자력 기술지도 작성 총괄위원회(위원장 강창순 서울대학교 교수)를 구성하고 산하에 5개 비전분야, 15개 소위원회, 그리고 이들의 업무를 기획·지원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축했다.

A~E로 나뉜 5개 비전분야별 업무는 **A분야** ▶미래 청정 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기술 발굴, **B분야** ▶방사선 의학과 방사선 생명공학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기술 발굴, **C분야** ▶원자력과 연계한 첨단 산업기술과 민·군겸용기술 발굴, **D분야** ▶인류의 지적 자산이 될 수 있는 원천기술 발굴, **E분야** ▶핵융합기술과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는 기술 또는 방안을 모색하게된다.

원자력 기술지도 작성에는 신재인(申載仁) 한국원자력학회장을 비롯, 산·학·연 전문가 약 200명이 참가한다.

## 원자력발전 수거물 관리센터 유치 지자체 추가 지원

**과** 기부 권오갑(權五甲) 차관은 정책 브리핑을 통해 “원자력발전 수거물 관리센터와 양성자 가속기 사업의 원활한 연계 추진을 위해 이들을 유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통기술 첨단화연구실 사업체 지정, 전문 과학관 건립 등을 통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건설작업을 위해 이 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양성자가속기 시설을 추가로 건립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후 이들 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두 시설 구축과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 사업 8천600억원, 원자력 기금을 통한 별도의 지원 사업 7천500억원, 지역개발 사업 4천900억원 등 모두 2조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과기부는 두 사업을 원활하게 연계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내에 최석식(崔石植)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오고 있다.